나의 롤모델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읽고-

선일여자중학교 3학년 2반 한승희

이순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충무공 이순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必死卽生 必生卽死)',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등이다. 물론 -난중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전쟁 중에 적과 싸우고 있는 장수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7년간의 전쟁 상황이 매우 꼼꼼하게 적혀 있다.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 조선 수군의 상황과 전투장면,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군비를 확충하는 모습까지 너무 생생하게 써져 있다. 그래서인지 모든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졌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는 우선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처를 하면 많은 수의 아군만 죽게 만들고 적군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장군은 아무도 전쟁이 터질 거라 생각하지 못할 때 미리미리 전쟁준비를 하였고, 적들이 쳐들어온 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내가 전에 책에서 읽었던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덥석 물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순신 장군 역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다.

-난중일기-에는 색다른 매력도 숨겨져 있다. 바로 '인간' 이순신의 모습이다. 예전엔 이순신 장군을 임진왜란의 영웅으로만 생각했는데 -난중일기- 속에는 우리 땅을 짓밟은 왜적들을 모조리 소탕하겠다는 결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에 대한 안쓰러움, 전쟁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조정에 대한 안타까움, 가족에 대한 사랑, 툭하면 자신을 헐뜯고 모함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왜적들이 명량해전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이순신의 고향 아산에 불을 지르고, 그에 대항하던 막내아들 면이 죽었을 때 슬퍼하던 장군의 모습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쟁 중이기에 장례도 못 치르고 진영으로 돌아가며 그것을 평생의 한이라고 탄식하던 부분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또, 백의종군하기 전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북받쳐오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오열했다는 부분을 읽을 때도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전장에서는 적들을 쳐부수는 강인한 장수였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따뜻하며 솔직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했던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하게 느껴진다. 원균의 모함으로 2차 백의종군을 할 때, 그는 원균을 엄청 원망하면서도 수군을 걱정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이순신의 매력

이자 멋짐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배를 버리고 육군이 되라는 선조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만약 이순신이 임금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답답하다. 그래서 새삼 느낀 것이 있다. 군주는, 아니 지도자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전쟁을 빨리 승리로 이끌면서 끝낼 수도 있고, 수하들이나 백성들의 원망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학익진 전법 때문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학익진 전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그 어렵다는 학익진 전법을 사용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전술이 얼마나 과감하고 뛰어난지 알 수 있다. 언젠가 박물관에서 한산도 대첩 당시의 학익진 전법을 모형으로 복원해 놓은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정말 장대하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전투 중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전투가 있다. 사실 이 전투 덕분에 임진왜란이 막을 내릴 수 있었는데 바로 절이도 해전이다. 절이도 해전은 왜적에게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승리한 공을 명나라 도독에게 돌리고, 조정에서도 절이도 해전의 가치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섬기는 작은 나라 조선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쩌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특히 임진왜란 내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했던 점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 모습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도 무척 닮았다. 김연아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스케이트가 자주 망가졌는데 새 스케이트를 자꾸 사기가 어려워 테이프를 감고 타니까 다른 선수들과 그 엄마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을 툭하면 모함했던 원균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이순신 장군과 김연아 선수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됐다.

나에게도 그렇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온갖 역경을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싶다. 그러기 위해 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키워나가야겠다.